

구청장 도전 광주시의원들 속속 'U턴'

민주당 지지율 고공행진에 당선 확신 어렵자 출마 접어 기초의원들도 셈법 복잡... "U턴 방지책 마련" 목소리도

광주지역 일선 구청장에 도전했던 광주 시의회 의원들이 속속 시의원 선거로 선회하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열하자 당선을 확신하기 어려워진 시의원들이 구청장 출마의사를 접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의 구청장 출마에 따른 빈자리를 노렸던 기초의회 의원들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고, "일부 시의원들이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뚝뚝만 났

이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8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상당수 시의원들이 구청장 출마를 접었다. 서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심철(무소속·서구1) 의원은 "국민의당 탈당 등 정치적 변화가 심해 시의원 선거에 집중하기로 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당을 선택해 나갈 것인지는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또 남구청장에 도전장을 냈던 유정심(민평·남구2) 의원도 시의원 선거 쪽으로 기울고 있고, 광산구청장에 도전하려 했던 문태환(무소속·광산2) 의원은 당이 분화

된 뒤 시의원 선거로 마음을 바꿨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민중(광산4) 의원도 시의원 출마와 구청장 출마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이다.

또 각각 북구청장과 서구청장 후보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린 전진숙(민주·북구4) 의원과 주경남(민주·서구4) 의원도 시의원 재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반면, 동구청장에 출마한 임택(민주·동구1), 서구청장에 도전한 김보현(민주·서구2)·김영남(민주·서구3), 남구청장 선거에 뛰어난 박춘수(민주·남구3), 북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오섭(민주·북구2)·문상필(민주·북구3)·김동찬(민주·북구5)·이은방(민주평화·북구6) 의원 등은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의원 출마로 되돌아오는 시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뚝뚝 올리기' 근절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출마자로 이름을 올린 뒤 슬그머니 체급을 낮춰 도전하는 출마자들의 정치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출마 여부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지만 광역·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경쟁을 하다가 광역·기초의회로 유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경선 과정에서 이 같은 정치 행태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靑-국회 개헌 대타협 나서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기자회견

전국의 지방분권 개헌 운동 단체의 연합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개헌 일정과 방안을 묶어 일괄 협의하는 정치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6월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선 지방분권과 기본권 중심의 1단계 개헌, 이어 권력구조 중심의 2단계 개헌 또는 권력구조를 포함한 일괄 개헌을 하는 개헌 일정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와 대통령의 협상을 통한 합의,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미 자치입법권·주최재정권·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개헌의 주요 내용은 오랫동안 논의됐고, 지난 대선시기에 여야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 바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가장 합의가 가능한 의제이므로 우선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회의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최근 색깔론 공세와 관련, "지방분권 개헌을 연방통일을 하기 위한 술수로써 북에 나라를 바치는 우리 사회의 체제변경 시도"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 개헌에 색깔론을 덮어씌움으로써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한국당의 10월 개헌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 없는 10월 개헌 실시 등의 개헌 연기론은 또다시 국민 기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약속을 준수하고 조속히 당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검찰조사가 먼저” 안희정 기자회견 취소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께 사죄를 올릴 예정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서기로 했던 단상에 마이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민주 “성폭력 근절” 미투 법안 봇물

유승희·백혜련 의원 명예훼손죄·공소시효 배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유류 정치인들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라 나오자 8일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야권의 공격에 대한 반응은 자제하면서 '성폭력 뿌리 뽑기와 2차 피해 방지'라는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 등 수습책 마련에 집중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세계 여성의 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과 제도 개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성폭력과 성추행을 뿌리 뽑고,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유승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해 폭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백혜련 의원은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성폭력 피해 폭로

대상이 대체로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집중되는 상황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미투 폭로의 대상이 주로 여당과 진보진영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진보진영 남성 정치인들이 그동안 민주화 등 '대의'를 앞세우면서도 '젠더 이슈'는 상대적으로 둔감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이나 진보인사들이 사회의 '주류'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 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폭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민주당 및 진보진영을 겨냥한 '공작'의 성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무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6·13 선거 현황

'광주서갑 재선거 출마' 송갑석 출판기념회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예비후보(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가 오는 10일 오후 3시에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1987년의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이 결집여진다. 송 예비후보는 광덕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전남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4기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광주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회를 겸한 형태로 구성된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지지자들의 영상축전, 대담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지난

'광주시장 출마' 나경채 여성정책 공약 발표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가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 8일 '여성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모두가 평등한 페미니즘 광주”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나경채 후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투(Me Too) 캠페인'을 보면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고 있다”며 “여성들이 전쟁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성평등위원회 권한 강화로 강력한 성평등 시정 구현 ▲365일 안전한

정의당 나경채 광주시장 후보가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 8일 '여성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모두가 평등한 페미니즘 광주”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나경채 후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투(Me Too) 캠페인'을 보면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고 있다”며 “여성들이 전쟁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문상필 광주시의원 북구청장 출마 선언

문상필 광주시의원이 8일 6·13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경제, 생활 등 3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북구청을 주민서비스 기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심기관으로 재탄생시키고 경제혁신을 통해 '낙후' '정체' '소외'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북구를 만들겠다”면서 “광주역 철도 기능을 폐쇄하고 공공행정복합타운 건설과 한국문화연구원 유치, 문화관광드림 특별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북구의 성장 동력을

유두석 장성군수 10일 출판기념회

유두석 장성군수는 10일 오후 2시30분 장성문화회관에서 저서 '아름다운 귀향, 그 뒷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연다.



기를 들려주고, 진행자로 참여해 저자와의 대화를 주도한다. “인간 유두석”편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신문배달을 하며 모은 돈으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눈물진 과거사와 성장 과정을 엮어갈 예정이다.

유 군수는 저서에 그동안 하고 싶은 말과 눈물 어린 경험을 담았다. 이날 행사는 주민과 소통의 자리를 겸해 진행된다. 오랜기간 인연을 맺은 발원전 전원주 씨가 현장토코쇼에 출연해 생생한 목소리로 “인간 유두석을 말하다”라는 일대

'장성군수 출마' 윤시석 출판기념회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윤시석 전남도의원(장성1·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후 1시30분 장성군민회관에서 저서 '장성토박이, 희망을 말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전력으로 KTX 장성역 점차 문제, 장성농업의 발전 방향, 축력산을 비롯한 장성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 등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16년간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성 건설, 소통과 화합의 장성'을 만들겠다며 지난날 장성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박정욱·오광록기자 jwpark@

저서 '장성토박이 희망을 말하다'는 윤 의원이 고향 장성에서 나고 자라 3선 전남도의회가 되기까지의 성장과정과 의정활동의 성과, 군민과 도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 이야기를 담았다. 또 희망이 넘치는 장성의 미래 발전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연수원/요양(병)원 변경가능
- 대572평, 건683평, 객58, 4층건물
-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 전체리모델링(5억), 관광온천지구
- 매18억(대출8억포함,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광주에서 40분
- 대지106평, 건물42평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시세 - 1억 1000만원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매매 - 8200만원
- 문의. 010-3605-5000